

전주시, 에너지안전도시 정책 주목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주시가 에너지 걱정 없는 에너지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방정부 처음으로 에너지 사용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길 것을 선언했다.

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에너지안전도시 선언'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을 토대로 전주를 저탄소, 저위험, 회복력이 있는 에너지안전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각각 11%와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6기 전주시의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언 에너지·전력자립률 각각 30%·40%까지

핵심 정책인 사람과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통합 계획의 에너지 분야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한 '에너지디자인3040' 실천을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방향, 30개 정책과제 주요사업을 수립했다.

또한 시는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솔선수범 참여하는 에너지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 학교·유치원 등 4개 교육기관과 '2016 전주 에너지 독립학교' 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학생 및 원생들이 어려서부터 에너지 절약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

시하고 소등 등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12.8%에 해당하는 17만6000석유환산톤(TOE, 771GWh)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35만 6000TOE(1,561GWh) 발전량을 통해 38만2000TOE(1675GWh)에 달하는 에너지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90만 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 하반기 중 수립되는 에너지 자립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사업

을 추진, 전주를 에너지 부족과 에너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제13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22일 오후 7시 삼천동 우림성당 앞 삼천동에서 '에너지를 줄여 별을 봐요'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삼천동화의 집과 효자문화의 집 회원 등 전주시민들의 참여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과 함께 난타와 통기타, 하모니카, 인디밴드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그린메이저가 펼쳐졌으며, 부대 행사로 열음조각 퍼포먼스와 에너지 절약 관련 전시·캠페인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김영재 기자

성관계 유인 강도행각 일당 구속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미끼로 유인해 모텔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모텔에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모(2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A(18·여)양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50분경 전주시 덕진동 한 모텔에서 김모(21)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 등 총 7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여직원 성추행 의혹' 남원시 고위공무원 숨진 채 발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남원시청 고위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남원시 대강면의 한 야산에서 남원시청 소속 고위공무원 A(5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누나에게 "선산에 별초를 하러 가겠다"고 통화한 뒤 귀가하지 않자 친척들이 찾아 나서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매형은 "선산 인근 도로에 차남의 승용차가 주차돼 있어 선산에 올라가보니 숨겨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선산 인근에 주차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여보 사랑한다. 미안해"라는 메모를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클린' 병원 만들기 앞장

청렴정책 추진 전담팀 구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추석명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클린' 병원 만들기 에 나섰다.

전북대병원은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청렴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조직내의 관행화된 부조리를 척결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한 것을 골자로 병원 자체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실에서는 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법률 취지와 내용 등을 알려 청렴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청렴대응 형식한데 병원내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팀(TFT)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특히 외부인이 부패신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전화와 대면신고 등 신고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행령이 나오면 해설집과 매뉴얼을 공지해 전직원들이 법률 취지와 내용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내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인사부서에서는 복무규정을 강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계약부서에서도 거래업체와 체결중인 청렴계약서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보완하기로 했다.

김명재 병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조직내 관행화된 부조리를 없애고 공공영역에 대한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만큼 병원에서도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나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및 배우자는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의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초보기업 6개사 글로벌 시장개척단으로 베트남 파견

전주시가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는 전주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매출 다변화를 위해 (주)바로텍시너지 등 관내 중소 벤처기업 6개 업체를 글로벌시장개척단으로 베트남에 파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파견된 업체는 (주)바로텍시너지, 비케이시, (주)사이피코리아, 대승, 엔투인, (유)셋토퍼 등 광복동 전주산업단지 내 전주 첨단벤처단지 입주한 수출 초보기업으로, 해외시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업과 전주시 해외시장 개척 프로젝트에 1회 경험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베트남 시장을 잡아라!'를 슬로건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무역상담회 등에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과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글로벌시장개척단 활동 중 화장품과 건강, 미용,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엔투인은 현지 5개 업체 바이어들과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6개 참여 기업들은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현지 30개사 바이어들과 1:1 매칭 무역

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LED 전문 개발 및 생산 업체인 비케이시(대표 김근식)는 지난해 전주시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해 비열치료기로 '2015년도 베트남 무역상담회'에서 2만3000불 수출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바이어 상담 의견을 고려한 현지 제품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0만 불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글로벌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전주시 수출초보기업들이 베트남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창수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수출초보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지 무역상담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바이어 상담 결과를 반영한 현지화 제품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내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울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등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돼 연습하는 울지연습 훈련이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첫 날인 22일 새벽 전주시 산하 전 직원이 불시에 소집, 시청 강당에 모여 응소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전주 풍남문광장, 응원 함성으로 울려 퍼진다

오늘 전북현대 ACL 8강전 거리응원 전개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현대모터스 FC팬들이 전북현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우승을 기원하며 거리응원을 펼친다.

전북 현대모터스 FC는 23일 오후 8시 30분(한국 시각) 중국상하이 스타디움에서 상하이 상강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른다.

이에 전주시와 전북현대모터스FC는 중국 현지 응원에 참여하지 못한 팬들의 합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풍남문광장에서 길거리 응원을 펼친다.

특히 거리응원을 위해 하이트 맥주에서는 팬들의 응원 열기를 돕우기 위해 생맥주 무료 시음회도 제공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한 달여 동안 전북현대 홈경기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전북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면서 "많은 분들이 승리를 위해 함께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ACL 8강전 2차전은 추석연휴 전날인 오는 9월 13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며, 1·2차 경기 통합 승점을 따져 4강 진출 여부를 가리게 된다. /김영재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금융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